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27호 / 3월 27일

China Development Forum: WTO 체제하의 중국경제 집중 토론

1. 개요

□ 3월 24~26일까지 북경에서 온자바오(溫家寶) 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내외 석학,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“WTO 회원국으로서의 중국”이라는 주제하에 China Development Forum(中國發展高層論壇)이 개최되었음¹⁾

- 온 부총리는 WTO 가입이 중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며, 상품,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향후 5년간 세계 각국에 1조 5,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.
- 포럼 참석자들은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△정부의 거시경제 조절 메커니즘 완비, △국유기업 개혁 및 정부관리시스템 개혁, △농산물시장의 개방 및 농업구조 합리화, △자본시장의 개방 및 시스템 개혁, △지방보호주의 타파 및 독점 철폐, △무역 및 투자정책 개선 등 6개 분

1) China Development Forum은 2000년부터 국무원발전연구중심(DRC)의 주관하에 매년 3월 하순에 개최되고 있으며, 중국의 부총리와 장관급 등 최고위층 관료와 국내외 석학 및 CEO들이 대거 참석하여 중국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가장 권위있는 정책포럼임.

야에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음.

2. 주요 토론 내용

□ 로우지웨이(樓繼偉) 재정부 부부장: 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메커니즘 완비

- 중국의 금년도 국채 잔액은 1997년의 3배에 해당하는 1조 8,000억 元으로 GDP의 18%를 차지함. 현재의 채무비중이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, 재정 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함.
- o 중국정부의 잠재적 채무부담은 지방정부 채무(1,000억 元 내외), 상당 부분의 은행권 부실채권(1조 4,000억 元), 그리고 우발채무 등을 포함하여 낙관적으로는 GDP의 40~50%, 비관적으로는 70~100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.
- 재정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재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칙은 공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며, WTO 규약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일부 산업에 대한 세제우대정책을 시행할 것임.
- 재정개혁은 주로 조세제도 완비, 준조세 정비, 이전지불제도 완비, 재정지출구조 합리화, 예산외자금 관리체제 개혁 등을 포함함.

□ 장치엔궈이(蔣黔貴) 경제무역위 부주임: 국유기업의 개혁 및 정부의 역할

- 장 부주임은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밝혔다.
- o 국유자산 출자자로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유자산관리제도 완비
- o 국유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경영자 인센티브 방식 모색
- o 투자관리체제를 개혁하여 투자주체의 지위와 역할 명확화
- o 독점산업에 대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,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주주를 다원화

□ 두칭린(杜青林) 농업부장: 농산물시장의 개방 및 농업구조 합리화

- 두 부장은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일부 노동집약적 농산물의 수출에는 유리하지만, 전반적으로 수입농산물의 유입으로 농산물 과잉과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농촌소득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.
- 농업구조의 합리화는 농산물의 품질 및 농업생산의 경제적 효율 향상,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, 농민소득의 증가를 목적으로 함.
- 지역별 특화작물을 재배하여 지역간 비교우위를 발휘하고,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높임. 또한 농산물가공업 발전을 통한 농산물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,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이전 등을 추진함.

□ 다이상룡(戴相龍) 인민은행장: 자본시장 개방과 시스템개혁

- 다이 행장은 자본시장의 낙후와 은행개혁의 지연으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,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 비율을 높이고, 은행개혁을 가속화하여 선진적인 대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음.
-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작년말 현재 25.37%인바, 이를 매년 3%포인트 정도씩 감소시켜 오는 2005년 말까지는 그 비율을 15%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힘.

□ 왕양(汪洋) 국가발전계획위 부주임: 지방보호주의 타파 및 독점 철폐

- 왕 부주임은 지역 이기주의와 지방정부의 보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힘.
- 또한 전력을 비롯한 독점산업의 관리시스템을 개혁하여 공정한 시장진입 규정

을 제정할 것이라고 함.

□ 스광생(石廣生)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: 무역 및 투자정책 개선

- 스 부장은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법률 정비, 시장접근 확대, 관세율 인하, 비관세장벽 철폐, 정책 투명성, 컨설팅 및 통보 의무 수행,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함.
- 또한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와 함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은 정해진 개방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.

□ 한편, 토론에 참가한 외국 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를 지적하고, 자본시장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음.

- 그린스펀의 후임으로 미 FRB 차기 의장 취임이 유력시되고 있는 스탠포드대의 Michael Boskin 교수는 중국의 점진적인 개방정책, 기업개혁, 안정통화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,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함.
- 모건스탠리의 Stephen Roach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재현 가능성과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지적함. 또한 미국경제에 대해 예의 'double dip'론을 재차 언급하고, 이것이 중국의 대외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.
- 브루킹스 연구소의 Nicholas Lardy 박사는 중국은행의 자금 활용 능력이 매우 취약함을 지적하고,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함.
- 하버드대학의 Dwight Perkins 교수는 주식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, 현 단계에서 선진국형의 주식시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식시장 및 기업을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논평함.

- o 특히 국유기업은 복잡한 소유구조와 관리구조를 투명화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함. (***)